

Daily Auto Check

2020.11.16(Mon)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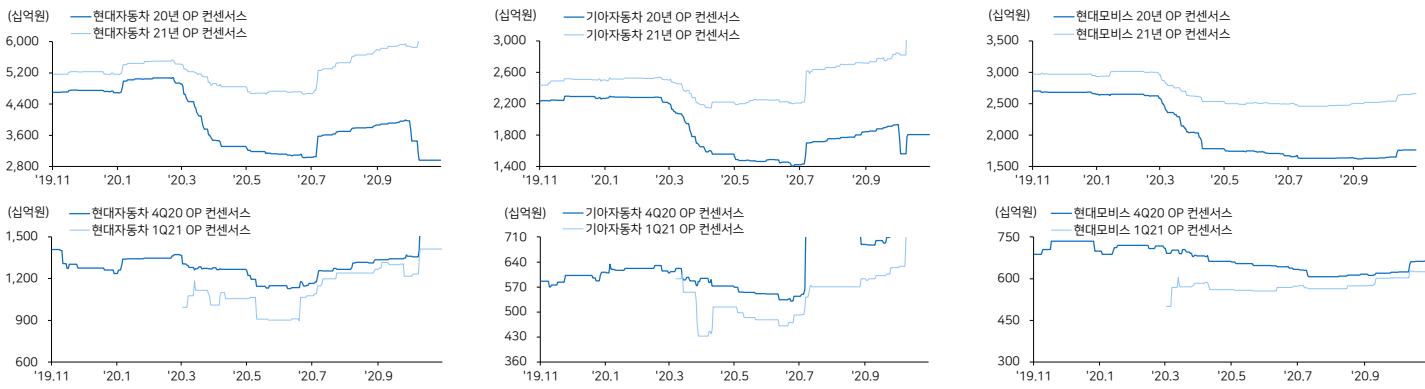
RA 이다빈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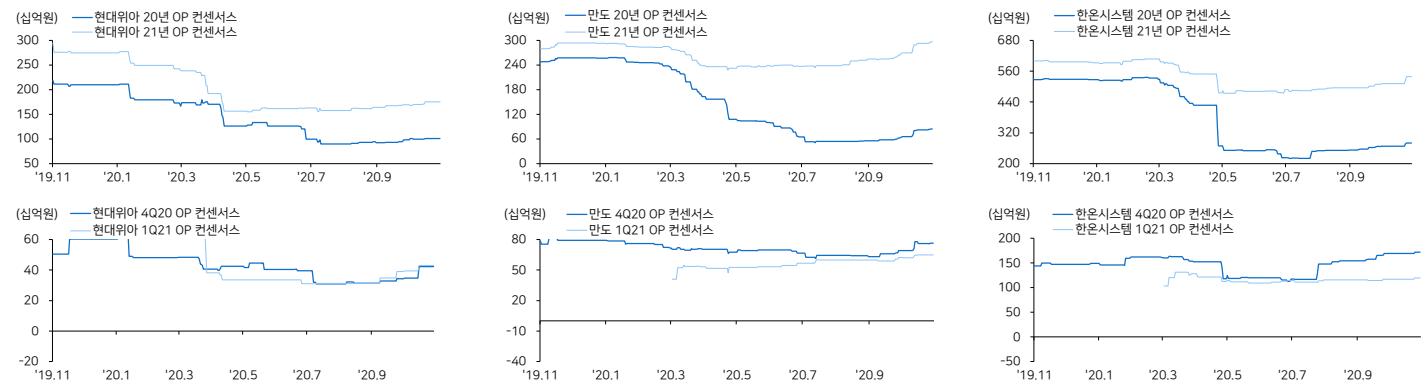
dabin.lee@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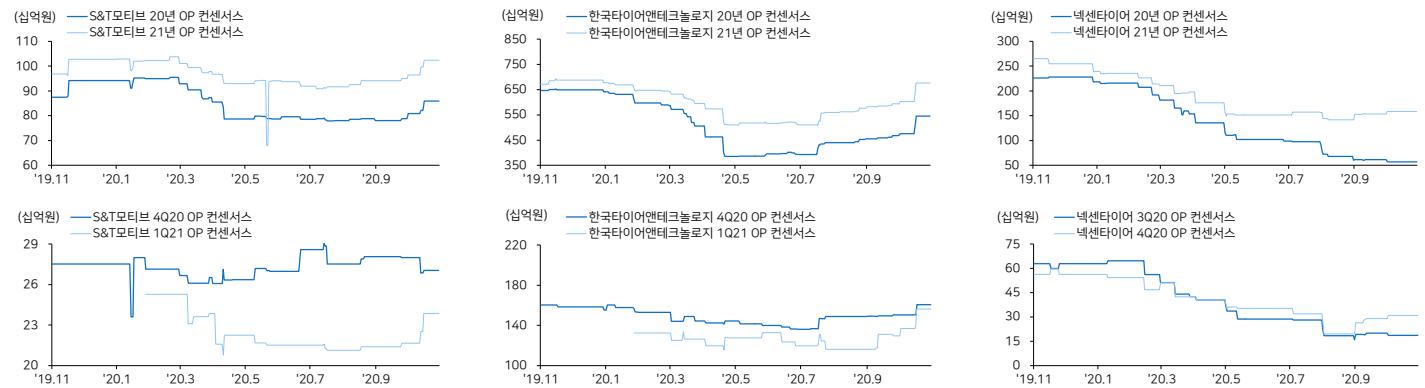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자동차 · 철강 등 관세장벽 철페에...현대차 동남아 진출 날개 (이데일리)

한·중·일을 포함해 아세안·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억대 규모의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최종 서명되면서 '매개 자유무역협정(FTA)'이 출범. 보호무역주의의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리스크를 최소화할 통상 플랫폼이 마련된 것.

<https://bit.ly/3f5Nxm>

"엄마가 누구니?" "현대차요" 사내스타트업 6곳 또 독립 (머니투데이)

첨단기술로 무장한 현대차그룹 사내 스타트업 6곳이 독립기업으로 새롭게 출발. 현대차그룹은 지난 6월 이후 전스웰, 포엔, 코코넛사일로, 슈퍼무브, 글루리, 피트리克斯 등 유망 사내벤처 6개사가 추가로 분사 독립했다고 밝힘.

<https://bit.ly/3ny0HZV>

현대모비스, 글로벌 영업 광활로 외국인 부사장 첫 영입 (아시아경제)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부문별 부사장으로 출신의 앤셀 마슈카를 글로벌 OE영업부문장으로 영입. 연구개발 부문이 아닌 영업 부문의 외국인 인사 영입은 이번이 처음. 마슈카 부사장은 현대모비스가 그동안 영입한 해외 임원 사례로는 최고 적급이기도 함.

<https://bit.ly/3pxeJDK>

뉴욕 상록한 中 전기차에 '서학 개미'가 물린다 (머니투데이)

국내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해외에서 전기차 주식을 적극 사들인 것으로 나타남. 순매수 1위를 차지한 테슬라에 이어 중국 전기차 업체인 니오와 샤오피ング이 2위와 3위로 뛰어올랐음.

<https://bit.ly/2Uuy5ed>

제네시스 GV80, 美 사전계약 2만대 돌파...현대·기아차 SUV '돌풍' (이데일리)

미국 정식 출시를 앞둔 프리미엄 SUV GV80이 사전계약 2만대를 돌파하는 등 제네시스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음. 현대·기아차 SUV가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양은 성과라 더욱 주목됨.

<https://bit.ly/36K6pYK>

한성화업계, 초라해진 3위 다툼... 현대·기아차 점유율 80% 넘어 (시사저널e)

내 한성차 5개사의 순위 다툼이 갈수록 의미가 퇴색 중. 현대·기아차 점유율이 8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르노삼성, 쌍용차, 한국GM은 20%도 안되는 시장을 두고 서로 경쟁. 여기에 수입차까지 들어나며 국내에서 3사가 살 곳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https://bit.ly/3pvQRQc>

글로벌 경차업체 화재로 잇단 리콜... 'K-배터리'도 곤혹 (연합뉴스)

글로벌 원성차 기업들이 잇달아 전기차에 대한 리콜 결정을 내리면서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속앓이하는 모습. 아직 화재 원인을 단정할 순 없지만 전기차의 안전성 논란이 계속될 경우 배터리 업계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

<https://bit.ly/2IHOzG5>

중국 5G·자동차·배터리 대표 기업 둥쳤다 (아주경제)

최근 중국 3사가 중국 프리미엄 스마트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브랜드 출시에 나서면서 이들이 쏠리고 있음. 창안차 회장은 이날 열린 신제품발표회에서 "창안차는 화웨이, CATL과 손잡고 프리미엄 스마트카 브랜드를 만들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

<https://bit.ly/334aYMV>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